

Hot issue

FOCUS

다일 평화의 마을
의에 목마른 자 / 02

국내 다일의 현장

다일영성생활수련원
다일 영성생활수련은
자유와 기쁨입니다 / 09



다양성 안에서
일치를 추구하는
DAIL COMMUNITY

다일공동체

2013.11

150기

다일영성생활수련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1.11 다일의 날에 영성수련 150기가 시작됩니다



잘 익은 열매들이 갈무리되고 곱게 물든 잎이 땅으로 돌아가는 11월을 맞이합니다. 아름다운 이 가을에 후원회원 여러분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지난 10월 4일엔 천사병원 개원 11주년을 맞아 다일천사병원과 다일작은천국 가족들과 경축하러 오신 후원회원들을 모시고 감사예배를 드렸습니다. 시민의 성금으로 세워진 병원이 시민들의 사랑의 손길로 운영되어온 지난 11년, 돌아보면 기적의 연속이었습니다. 이 기적을 다일공동체와 함께 만들어 오신 후원회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11월 3일부터는 7일까지 캄보디아 다일 비전트립이 진행됩니다. 다일의 사역을 사랑하시고, 해외선교에 비전 있으신 분들과 함께 가서 큰 은혜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11월 11일은 다일의 날이자 다일영성수련 150기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해외에서 열린 수련까지 치면 160기가 넘고요. 이 수련들을 통해 수많은 벗님들이 아름다운 세상을 찾아 작은 예수가 되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었으니 주님의 크신 은혜에 감격할 뿐입니다.

150기가 진행되는 동안, 여러 교회들이 교회 중직자들은 물론 전교인 수련을 목표로 다일영성수련에 참가하였고, 여러 기독교 학교 교수님들과 한국 영성신학자협회 회원들이 참가했습니다. 2013년도부터는 한동대 상담심리사회복지학부 학생들이 다일영성수련을 필수과목으로 선정하고 참가해오고 있습니다.

다일공동체 영성수련 동안 사람을 변화되고, 성삼위 하나님을 만나 대화하고 사랑하고 동행하는 은혜는 전적으로 성령의 은혜입니다. 저와 다일공동체 가족들, 다일영성도우미들은 오직 이 일에 목숨을 걸고 섬길 뿐입니다. 150기에 이르는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특은에 감사드리며, 이 은혜의 자리에 후원회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잘 익은 열매들이 풍부한 자양분으로 만인을 이롭게 하는 헌신의 귀한 본이 되고 있습니다. 한 해의 소임을 마치고 곱게 물든 나뭇잎들은 기꺼이 대지로 돌아가 뿌리에 최적의 거름이 되고 있습니다. 이 헌신의 계절, 겸손의 계절에 사랑하고 존경하는 후원회원 여러분들 더욱 큰 보람의 열매 익히는 나날들 되시길 기도합니다.



2013년 11월에
작은형제 **침**원도 목사 올림

C O N T E N T S

2013.11



- 02 FOCUS 다일 평화의 마을(DTS훈련원)
 '의'에 목마른 자
- 06 REVIEW 다시한번 일어서기
- 09 국내 다일의 현장 다일영성생활수련원
 다일 영성생활수련은 자유와 기쁨입니다
- 12 해외 다일의 현장 포카라다일공동체
- 14 이 달의 에세이 책과 나
- 16 다일공동체 25주년을 기념하여
- 18 봉사자 나눔터 밥퍼는 000다 / 나는 행복한 자원봉사자
- 20 다일 뉴스
- 24 영혼을 위로해 주는 시
- 25 나눔을 실천해 주신 신규 회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 26 후원 안내, 연말정산안내
- 28 천사를 찾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웃을 행복하게, 세상을 아름답게

후원 문의 및 신청 02-2212-8004 www.dail.org

발행인 | 최일도 편집장 | 김연수 발행처 | 사회복지법인 다일복지재단 발행일 | 2013년 11월

주소 | 서울시 동대문구 전농 1동 495-15 편집위원 | 김도한, 목정수, 이가영, 최가람

사진 | 김도한, 목정수 디자인 | 이진희 전화 | 02-2212-8004, 2213-8004 팩스 | 02-2243-8005

“의”에 목마른 자!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다일 모든 가족들께 문안 드립니다.

다일 제자도 훈련원이 있는 경기도 가평군 설악 면 목안리는 이제 어느덧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제법 쌀쌀해 졌습니다.

그러나 제자도를 실천하고자 하는 D.T.S훈련생의 주님을 찬양하는 목소리 더욱 크고 우렁차 갑니다. “너희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주님의 말씀을 묵숨처럼 귀히 여기며 “의”에 목마른 자가 되어 열심히 하루하루 삶으로 주님의 복음을 실천하고자 몸부림칩니다.

무엇이나 준비되어 있고 무엇이나 받아들이는 철저한 제자훈련 그리고 이를 통해 마음 속 깊은 곳에서 차고 넘치는 기쁨과 평화는 세상 어느 것과는 비교 할 수 없습니다.

제자도 훈련을 통해 머릿속에 있던 지식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곳

충만한 예수의 사랑으로 가득 찬 삶이 이루어지는 곳

바로 그 곳이 목안리 다일제자훈련원입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삶이 예배가 되는 다일 제자도 훈련원

여러분을 세상에서 맛 볼 수 없는 기쁨과 은혜의 평화의 마을로 초대 합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름다운 세상입니다.

아하!





진정한 예수제자가 되기를 강구하며

마승서 (마가)

이 곳 목안리 DTS훈련원에 와서 생활하며 규칙적인 예배와 함께 생소하지만 노동기도라는 것을 통해 저는 그 동안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것은 “나는 누구인가?”라는 화두를 생각하고 또 생각하며 제가 살아왔던 지난 과거를 돌이켜보며 저의 오만함과 나약함 속에 교만과 남을 정죄하며 살아 왔었고 그리스도인의 삶과는 매우 동떨어진 삶을 살아왔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 DTS훈련원 입소를 명 받았을 때에 두려움, 착잡함과 함께 반감마저 있었으나 이제는 이 훈련의 목적인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살아가기 위한 시발점에 서서 우선 나를 버리고 또 버려 고통 속에 신음하며 사는 과거의 삶이 아닌 주님의 나라와 의를 지키며 사랑과 용서와 나눔과 진리를 행하신 예수님의 삶을 조금이나마 본받아 참된 제자가 되도록 열심히 훈련하여 주님의 뜻에 걸 맞는 종이 되고자 합니다.

3개월간의 DTS 훈련을 마치게 되면 참 그리스도인, 참 제자가 되어 지금부터, 가까운 것부터, 나부터 먼저 실천하는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것이며 항상 주님께 여쭙어보고 소통하며 오병이어를 실천하는 사람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더욱 많은 분들께서 DTS훈련을 통해 저처럼 냉담했던 신앙심이 회복되고 순종과 사랑으로 거듭나 하나님과 동행함의 즐거움을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길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의 한 조각이고 싶습니다

이정식 (청솔)

다일을 만난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은혜요 축복이었습니다. 스스로의 감옥에 갇혀 지낸 9년의 시간, 그 어둠 속에 주님은 찾아오셨고 아름다운 세상 찾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찍으신 마침표에 물음표를 달지 말 것을 ‘내가 누구이며 누구의 것’인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새롭게 태어난 거듭남의 시간으로 맞이합니다. 태어난 자의 축복이자 숙명이 그러하듯 나는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걸음마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첫걸음을 DTS훈련으로 시작합니다.

DTS 시간을 통해 저는 두 가지를 소망하며 꿈꾸게 되었습니다. 첫째는 완전한 순명의 삶입니다. 나를 온전히 비워내는 작업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과 원하심,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 리더십에 대한 절대적 순명을 소망합니다. 둘째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소망합니다. 수천 번 들었고 말했던 뻔한 말씀, 그러나 이 말씀을 깨닫지도 행하지도 못했던 말씀이 ‘말’과 ‘글’이 아닌 삶이요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나의 숨소리 하나, 생각 하나, 언어 하나, 손짓 하나, 몸짓 하나조차도 하나님 나라의 작은 조각이 되는 것을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사람이 되는 행복한 꿈 하나를 간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DTS훈련을 통해 빚어 가실 내 삶, 내 영혼을 기쁨으로 바라봅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사랑합니다!



DAIL DTS 훈련원은

도시민민구제 사역을 지속적으로 하기 위하여 서울 근교의 한적한 곳에서 침묵과 묵상 가운데 영성 생활을 수련할 수 있도록 가평 설악면 묵안 1리 산자락에 비닐하우스와 조그마한 오두막을 짓는 것으로 시작하였습니다. 1998년 최일도 목사님의 첫 번째 저서인 “밥짓는 시인 퍼주는 사랑” 인세의 절반으로 북한에 결핵 차를, 나머지는 다일공동체에 헌금하여 현 위치인 묵안 2리 390-1 번에 농가 주택을 구입하여 1999년 부활절에 다일영성수련원을 개원하였고 1단계 아름다운 세상찾기와 2단계 작은예수 살아가기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2003년에 DTS훈련 1기를 시작한 이래로 2009년에는 현재의 DTS훈련원 건물을 완공하였습니다.

다일공동체 DTS(Discipleship Training school) 훈련은 자아실현의 장소가 아니라 자아 포기를 하는 곳입니다. 이 세상은 자아실현의 장소이며 얼마든지 자아실현을 위하여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DTS 훈련원은 철저히 자신의 자아실현을 내려놓고 주님과 함께 끊임없이 포기와 순종을 체험 하는 장소입니다.

DTS 훈련을 받는 기간 동안 이세상 통념구조와 중력에서 벗어난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제자가 되기로 결단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DAIL DTS 훈련 지원안내

지원자격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세례 교인으로, 다일공동체 영성생활수련 프로그램인 1단계 '아름다운 세상찾기'(4박 5일)와 2단계 '작은예수 살아가기'(5박 6일)를 경험한 신체 건강한 자

DTS 훈련원 후원안내

훈련생들이 주어진 기간 동안 노동의 기도처럼, 기도를 노동처럼 살아가는 나사렛 예수의 영성 생활과 다일의 정신을 잘 실천할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문의

다일평화의 마을

Tel_ 031,568,5004 Email_ ahtp7749@dail.org

국민은행 010-01-0619-487

(예금주: 사회복지법인 다일복지재단)



“노숙인 다시 한번 일어서기 다일영성수련”

서울시에서는 2011년도부터 노숙인 희망 찾기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2013년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2박 3일간 노숙인 쉼터 및 거리노숙인 40명과 함께 다일영성수련원에서 "노숙인 다시 한 번 일어서기"라는 제목으로 자신을 발견하는 영성수련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이들에게 소망과 기쁨과 삶에 희망을 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다일영성프로그램은 “당신은 누구입니까?”, “맑은 물 붓기”등으로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값어치 있는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여 자존감을 지키고 크고 작은 상처로 응어리지고 얼룩진 자아를 치유하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참가자는 대부분 노숙인 쉼터나 요양쉼터, 자활쉼터에 입소해 서울시로부터 보호요청을 받고 상담을 요구하는 분들이셨으며, 본인 희망에 따라 선정되신 분들이셨습니다. 하나같이 사람들의 외면으로 인해 이미 외로움과 고독이 숙달되어 있는 분들이시고 말없이 홀로 생활하시는 것이 익숙한 분들이셨기에 오히려 말을 많이 하거나 웃는 분들이 계시다면 더 이상하게 보일 정도 이셨습니다.

“밥퍼”에서 20년 이상 식사를 하시거나, 다른 무료급식소에서 20년 이상 식사를 하셨던 독거노인으로 30년 정도를 혼자서 외롭게 살아온 분들 중에는 말을 거의 잃어가는 분들도 계시다고 노숙인 중 한 분의 말에 얼마나 가슴이 찢히는지요!

이번 노숙인 3기 “다일영성수련”도 첫째 날은 긴장 속에서 시작이 되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적극적으로 프로그램에 참여 하면서 얼굴이 환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오기 잘했다.”를 반복하면서 내가 나를 너무 몰랐는데 나라는 존재를 알게 되었다며 기뻐하는 모습이 감격스럽기만 했습니다. 어떤 분이 화가 날 일이 아니고 내가 만든 껍질 속에서 껍질이 난지 내가 껍질인지 모르고 살았다고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살아온 나는 이 나라를 원망했고 사회를 원망했는데 이곳에 오도록 주선해주신 다일공동체와 서울시청에 너무도 감사를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다일공동체 파이팅! 서울시청 ‘파이팅!’을 다함께 외치는 그분들의 모습이 맑게 개인 가을 하늘처럼 아름다웠습니다.

전부는 아니겠지만 이러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야하는 노숙인들에게는 이번 영성수련은 말로 표현 할 수 없는 마음의 쉼과 살아온 인생의 돌아봄과 내적 치유가 있었음을 눈으로 확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따뜻하고 너그러운 사회의 관심과 배려로 이들을 끌어안고 가야한다는 점을 이번 다일영성수련을 통하여 더욱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들에게도 각종 교육의 영역을 더 넓혀야 함을 알게 깨닫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글_다일작은천국 방중근원장

Review



노숙인 다시 한번 일어서기 다일영성수련



다일작은천국은

사회복지법인 다일복지재단이 서울시로부터 수탁 운영하는 노숙인보호시설(쉼터)로 이 땅의 가장 외롭고 쓸쓸하고 소외된 분들이 길거리에서 생을 마감하지 않고 그 마지막 삶을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합니다. 아늑한 처소를 제공하며, 수많은 자원봉사자들로부터 사랑의 섬김을 받으면서 행복한 천국환송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합니다.

후원문의 다일작은천국 02-2213-8004

후원 국민은행 467701-01-224504 (예금주: 사회복지법인 다일복지재단)



다일영성수련은 자유와 기쁨입니다

다일공동체에서 실시하는 영성생활수련 가운데 1단계는 '아름다운 세상찾기'란 주제로 4박 5일 동안 열리는데 기독교인뿐만이 아니라 타 종교인이나 불신자까지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처음 수련을 받기 위해서 찾아오신 분들을 보면 이루 형용하기 어려울 정도의 얼굴들을 만나게 됩니다. 잔뜩 긴장하고, 짓눌려 있거나, 억압되어 있는 어두운 얼굴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4박 5일의 수련을 받고 나면 모두 성형수술을 받고 나온 사람들처럼 얼굴부터 바뀌게 되고 성령의 놀라운 변화를 체험하게 합니다. 그런 변화에 자신도 놀라고 또 함께 4박 5일을 지켜 봐온 벗님들과 도우미 모두가 놀라게 됩니다. 참자유와 진리 안에서 기쁨을 깨닫고 누리기 때문입니다.

꿀벌님과 명칭이님의 아름다운 세상찾기(사례)

140기에 아름다운 세상을 찾은 꿀벌님과 명칭이님이 다일 영성 수련원을 찾아온 것은 마지막 이혼 직전이었습니다. 이미 각방을 쓰며 남남처럼 살아온 것은 20년이 가까운 세월이었습니다. 외 아들은 어려서 교통사고로 잃었습니다. 두 딸 가운데 큰 딸이 아버지와 말다툼 끝에 아파트에서 투신해서 죽었습니다. 그 상처로 부인 명칭이님은 우울증을 비롯해서 각종 질병에 시달리며 죽음의 그늘아래 살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혼을 결심하게 된 것은 그 일에 대한 남편의 변함없는 태도 때문이었습니다. 다 큰 딸아이가 그렇게 죽게 된 것은 남편 때문이라는 아내의 말에 그것은 그 아이의 운명 때문이지 내가 죽인 것이 아니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그녀는 속에서 끓어오르는 분노를 폭발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말로 감정을 쏟아놓았지만 우울증에 알코올중독에 빠지게 되면서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는 관계에 치닫게 되었습니다.

이젠 이혼하는 것 외에는 바른 해결의 길이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도장을 찍으려는 찰나에 다일영성수련을 받아보라는 권유를 받은 것입니다. 영성 수련을 받는 내내 얼마나 울고 또 우는지 저렇게 울다가 어떻게 되는 게 아닌가 싶었고, 또 제대로 듣기는 할까 안타까운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녀는 모든 양금을 쏟아 놓고 깊이 박혀 있는 쓴 뿌리를 뽑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다일 영성 수련의 가장 큰 강점인 생각과 느낌으로부터 나와 사실을 바르게 볼 수 있게 하는 수련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과거의 억눌림과 분노로부터 자유를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영성 수련이 끝나고서 대부분 4박 5일동안 떠나있고, 비워두었던 자리로 빨리 돌아가고 싶어 하는데 두 분은 설악산으로 부부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예를 다 소개하려면 지면이 모자를 것입니다.



다일영성수련은 1단계 아름다운 세상 찾기 4박 5일, 2단계 작은 예수 살아가기 5박 6일, 3단계는 하나님과 동행하기 6박 7일로 되어있고, 주말을 이용해서 2박 3일의 침묵묵상수련과 축복수련이 있습니다. 그 뿐 아니라 언제든지 설곡산다일공동체에 오시면 영성과 침묵의 성지로 드러진 아름다운 영성수련원에서 마음껏 몸과 마음을 강건하게 할수 있는 개인 피정도 가능합니다.

올해는 11월 11일에 있게 될 150기와 12월 16일부터 있게 될 151기가 남아 있습니다. 아름다운 세상을 찾아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맛보고 회복된 관계 속에서 참 사랑의 삶을 이루도록 인도해 주는 다일영성생활수련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글_설곡산 다일공동체 원목 최홍

문의 031-585-2004 (설곡산다일공동체)

후원 국민은행 010901-04-064419 (예금주: 사회복지법인 다일복지재단)

**도움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영성생활수련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식기들이 대부분 이가 나가고 깨진 것이 많아 교체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후원금과 영성수련 회비만으로 운영 되다 보니 식기구입에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도움 주실 분들의 많은 연락 부탁드립니다. 연락은 다일복지재단 02-2212-8004로 주시면 됩니다.



포카라다일공동체의 빵퍼사역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네팔의 히말라야 중 가장 아름답다는 안나푸르나 봉우리를 보기 위해 꼭 가는 도시가 포카라입니다. 수도인 카트만두 다음 제2의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팔을 찾는 외국인이라면 꼭 한번은 가는 도시입니다. 그만큼 공기가 맑고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도시에도 규모가 큰 빈민촌이 있습니다. 이 빈민촌 수백명의 아이들은 너무나 가난해서 아침을 먹지 못하고 학교에 갑니다. 그리고 물로 허기진 배를 채우고 늦은 오후까지 수업을 합니다. 그들은 방과 후에도 집에 가서 퇴근한 부모님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이 고작입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빈민촌이라 새벽 일찍 일하러가는 부모님들로 인해 아침밥을 못 먹거나, 아예 먹을거리가 없어 굶는 아이들입니다.



네팔다일공동체는 이 빈민촌의 사하라공립학교 학생들을 위해 몇 해 전부터 작은 사랑을 나누어오고 있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빵과 학용품을 나누던 중 지난 8월 최일도 목사님의 포카라 방문을 계기로 이 빈민촌의 굶는 학생들을 위해 본격적으로 빵퍼사역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마침 한국의 다일공동체에서 DTS훈련을 잘 마친 네팔인 따루 목사님이 새롭게 설립하는 포카라다일공동체의 지부장으로 파송 받아 오셨습니다. 산티 사모님은 안과의사이지만 한국에서 따루 목사님의 유학생들과 한국의 네팔형제들을 섬기는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을 깊이 만났다고 고백합니다. 포카라다일공동체를 위해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때가되어 네팔로 보내신 귀한 가정입니다.

또한, 중국다일공동체 출신인 리일 형제님은 오는 11월 11일 '다일의 날'에 결혼식과 더불어 네팔선교사 파송식을 하고 15일에 네팔로 올 예정입니다. 제빵왕 김탁구보다 빵을 더 잘 만드는 리일 형제님은 감보디아 빵퍼사역을 준비하였는데, 이제는 포카라다일공동체 빵퍼사역을 위해 네팔로 오게 되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때가 되어 포카라다일공동체를 설립하게 되었고, 빵퍼사역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역자만 준비되었지, 사실 빵퍼를 위한 사역비는 전혀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사역자들을 보내심을 굳게 믿습니다. 그래서 사역비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번에 설립되는 포카라다일공동체의 후원천사가 되어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포카라다일공동체는 포카라다일교회를 설립하여 아직도 4억 8천만 개의 우상들을 섬기는 힌두교인들에게 주님을 전할 것입니다. 그리고 허기진 배를 부여잡고 내일을 위해 열심히 공부하는 어린 학생들의 굶주린 배를 채우며 주님의 사랑을 나눌 것입니다. 주님의 귀한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귀한 사랑을 나누는 포카라다일공동체의 빵퍼사역을 위해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다립니다. 여러분의 귀한 사랑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지금 여기에서, 작은 것부터, 할 수 있는 것부터...

글_네팔다일공동체 원장 박종원



책과 나

책은 누군가의 마음을 끝없이 움직이고
삶을 놀라게 변화시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책을 읽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방향과 목적이 달라 질 수 있습니다.
사람은 책을 만들고 책은 사람을 만든다고 하지요.
늘 부족한 것뿐이고 여러 가지 모자란 사람인데
좋은 습관이 하나 있다면 독서 하는 것입니다.
신학생 시절이던 30여 년 전부터 날마다
매주 한 권 이상의 책을 읽었습니다.
최소 한 권이고 많으면 두세 권 됩니다.
일일이 세어 보지는 못했는데 적어도 2천 권 이상 많으면
3천 권 정도의 책은 읽는 것 같습니다.
물론 교양 필독서와 전공분야인 신학 서적은 그 숫자에서 빼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책을 목안리 DTS훈련원에 다 기증해 버리고
지금 제 책상 위엔 성경과 늘 곁에 두고 있는 두 권의 책과 국어사전과
20권 안 되는 책이 놓여 있을 따름입니다.
지금 여러분 손에 어떤 책이 놓여 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그리고 내 삶의 방향과 목표가 일치하는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에게는 어린 시절부터 성경과 함께 두 손에서 놓지 않고 셀 수 없이 자주 읽어 온 두 권의 책이 있습니다. 한 권은 칼릴 지브란의 <<예언자>>이고, 또 한 권은 생텍쥐페리의 <<어린왕자>>입니다. 성경 다음으로 귀하게 여기는 이 두 권의 책에서 제가 희망하는 삶을 먼저 살아간 사람들을 항상 새롭게 만납니다. 그 속에서 무한한 지혜와 청초한 기쁨을 얻습니다. 삶의 방향과 목표에 맞는 책을 만나면서, 그것도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책을 만나면서 책이 주는 진리의 진미를 맛보며 참 자유와 기쁨과 행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최일도 목사의 저서 '밥심'에서)

Essay Book and Me

Bo ok



칼릴 지브란 (시인, 작가)

지브란 카릴 지브란 빈 미카일 빈 사드는 레바논계 미국인으로 예술가이며, 시인, 작가이었다. 그 당시 오토만 시리아의 영토이었던 근대 레바논의 브샤리 마을에서 태어났다. 어렸을 때 그의 가족은 미국으로 이민을 갔고 그는 미국에서 예술을 공부하고, 작품활동을 시작했다. 그의 대표작으로 손꼽히는 1923년작 예언자는 영어 산문체로 쓴 철학적 에세이 연작 중 하나이다. 영감이 넘치는 창작의 초기 사례에 해당하는 이 책은, 냉담한 비평적 평판을 받았지만, 1960년대 반(反) 문화의 창작물 중에서 가장 대중적인 작품이 되었다.



앙투안 드 생텍쥐페리 (비행사, 소설가, 시인)

앙투안 장-바티스트 마리 로제 드 생텍쥐페리는 프랑스의 소설가이자 공군 장교였다. 북서 아프리카·남대서양·남아메리카 항공로의 개척자이며, 야간 비행의 선구자 중 한 사람이다. 생텍쥐페리는 프랑스의 리옹에서 태어나 다카르에서 툴루즈까지 우편물을 항공 수송하는 회사에 다녔고 이후 제2차 세계 대전 초기에 공군에서 활동하다가 1940년에 프랑스 북부가 나치 독일에 점령되자 미국으로 망명하였다. 이후 1943년부터 다시 프랑스의 공군 조종사로 활동하다가 1944년 그의 마지막 비행에서 실종됐는데(추락사로 추정), 1990년에 그의 유품으로 보이는 비행기 부품이 발견되었다.

자원봉사자들이 뜻과 의지를 모아

자원봉사자들이 뜻과 의지를 모아

‘무료식사제공처’라는 글씨를 쌍굴다리 벽에 써서 올렸습니다

“한 사람이 와도 괜찮소

무더기로 와도 괜찮소

이 땅에 밥 굶는이 없을 때까지

당신의 의자가 되겠습니다”라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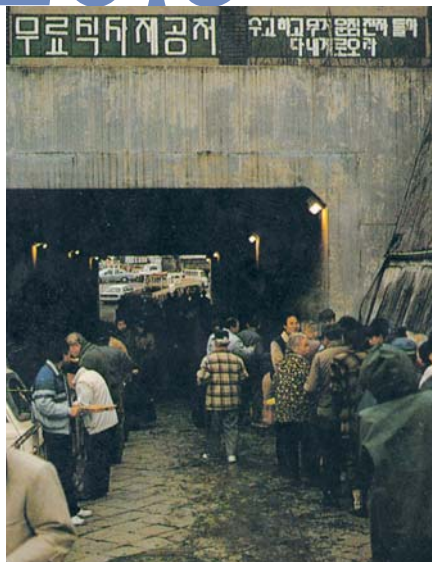
작지만 정성 다해 매일매일 함께 따뜻한 밥을 나눌 뿐 만 아니라
자활과 갱생의 삶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기 시작했습니다

편히 앉을 자리 하나 없이 길바닥에 퍼질러 앉아서 먹을지라도
비록 서서 밥을 먹을 수밖에 없어도
몹시 추운 날에는 발을 동동 굴러가면서 허기를 채웠습니다만
감사만이 넘쳤습니다

나눔의 현장에서는

한 그릇의 ‘밥’을 먹으며 나눌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밥심으로 기쁨과 행복을 되찾았고
다시 한번 일어서기를 시도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1998 - 2013 DAIL Community



천사운동으로 천사병원을...

“동전 100원부터 100만원까지 헌금하는 소액기부운동으로 전액무료 병원을 세우겠다고 하면 세상 사람들은 어찌면 우리들을 미쳤다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믿음을 온 몸으로 실천해온 사람들이 아니고는 아예 우리 말을 믿지도 않을 것이고 우리들을 한낱 이상주의자요 몽상가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비난이나 웃음거리가 되더라도 아랑곳하지 말고 오늘 우리 가슴을 적셔놓은 주님 약속을 굳게 믿고 열심히 뛰고 달리며 이 자리에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다섯 개를 쌓아봅시다. 우리 주님이 시작하신 일이니 주님께서 친히 이루실 것입니다”

착한 다일공동체 가족들은 모두 한 목소리로 ‘아멘’을 함창했습니다. 한달 후 다일가족들은 믿기 어려운 1천 1백만원이라는 돈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588 동네의 아주머니들과 직업여성들이 모아준 47만 5천원을 합해 1천 1백 47만 5천원이란 성금을 무료병원 설립을 위한 밀알 헌금으로 모을 수 있었습니다.

기적은 이때부터였습니다!

성가병원에서 거절당한 환자 이야기를 입에서 입으로

전해들은 신자마다 자신들도 이 일에 동참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늘 다일공동체를 아끼고 사랑해주시는 김동호 목사님, 음동성 목사님, 정태일 목사님, 조성기 목사님 등 많은 선배님들과 모교인 장신대 교수님들이 발 벗고 나서서 협력해 주셨습니다.

한 주일 두 주일, 시간이 흐를수록 후원회원들과 협력 교회들은 1백만원이라는 큰 돈을 선뜻 맡겼고, 학생들과 가난한 이웃은 매달 5만원씩 10만원씩 적금을 부어 분납하겠다는 약속을 해왔습니다.

거리의 천사들을 위하여 1백만원씩 천사의 사랑을 모아서 세우고 운영해보자는 무료병원, 일명 ‘천사의 집’이자 개신교 최초의 무료병원인 ‘다일천사병원’은 마음 따뜻한 시민들 사이로, 급기야는 KBS가 성탄특집 방송으로 이 소식을 전하며 전국에 확산되었습니다.

천사데이(1004DAY)와 천사운동을 시작한지 21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이 천사운동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9천명 이상이 동참해주신 이 아름다운 사랑의 기적이 끊이지 않고 이어지고 있는 것도 기적입니다.

만명의 천사후원회원이 모이는 날, 다같이 한 자리에 모여서 천사들의 노래를 함께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아하!!



밥퍼는 000이다

잔잔한 감동이다 재향군인회 이유경
봉사를 통해 오히려 내 자신이 은혜를 받았음이 얼마나 가슴 뭉클한지... 평범한 활동에서 오는 조용한 깨달음이 피곤한 몸을 기분 좋게 합니다.

나눔, 사랑이다 게라 김은옥
차가 많이 밀려 조바심을 갖고 어렵게 도착했지만 어르신들, 어려운 분들을 위해 좋은 일을 한다는 마음에 힘든지도 모르게 시간이 흘렀다. 물을 따라 드리면서 젊고 뭐든 나눌 수 있는 분들도 한끼의 식사를 먹기위해 줄을 서는 모습에 작은거라도 큰 물질이 아니라도 나눌 수 있는데 하는 아쉬움도 있었다. 뭐든 아끼고 지금 나부터 나눌 수 있어야 될 것 같다.

함께하는 생명이다 국립외교원 박상완
만물이 하나로 이어져있다고 말을 하지만 그것을 체험하기란 쉬운일이 아니다. 이곳 밥퍼에서는 나이, 성별, 직업, 종교를 불문하고 따뜻한 밥한끼를 먹을 수 있는 곳이다. 이곳에서 밥을 먹는 사람뿐만 아니라 밥을 짓는 사람들도 생명의 에너지를 공유한다. 그래서 상대와 내가 하나됨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고, 따뜻한 밥은 함께하는 생명의 매개가 되는 것이다. 사랑이 멀리 있음이 아니다.

살맛, 영혼의 에너지다 외교부 정효민
처음 왔습니다. 어제 숙직을 서고, 밥을 꼬박 새고, 오늘 봉사를 잘 할 수 있을까 걱정했습니다. 그런데 밥을 푸면서 힘이 솟았습니다. 스스로 밥이 되신 그 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밥이 되지 알았습니다. 한숨도 못 잤지만, 영혼의 에너지는 충만합니다. 감사드리고 사랑합니다.

살의 활력소다 홍주연
도움이 되고자 방문하게 되었는데 너무 많은 것을 얻고 갑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열심히 봉사하시는 많은 분들을 보고 더 열심히 즐겁게 살아가야함을 느끼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밥퍼 덕분에 오랜만에 행복했습니다.

씨앗이다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조은희
누군가에게는 너무도 당연한 일상인 밥 먹는 일이 이곳에서는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 일인지 다시금 깨닫고 갑니다. 봉사를 하면서 일상 생활에서 먹고 마시는 음식의 소중함을 또 한번 느끼면서 더욱 귀하게 여기도록 하겠습니다. 이 꽃을 피우기위해 필요한 것, 씨앗 같은 것이 바로 밥퍼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이 곳의 밥을 먹고 새로운 희망과 꿈의 꽃을 피울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낮아짐이다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김남희
높은 곳에서, 낮아짐으로 오신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가난하고 험벗은 이들에게 친구로 찾아오신 분의 그 마음을 조금이나마 느끼고 갈 수 있어서 주님께 감사합니다. 평소 감사함없이 살았던 저는 오늘 한끼, 아니 한술가락도 감사하고 귀한 식사를 경험하였습니다. 앞으로의 저의 식사도 꾸준히 그러하길 바랍니다. 이 낮아짐의 경험이 좀 더 많은 이들을 변화시킬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힘이다 영광고등학교 허수빈
밥퍼 봉사활동은 모든 이들에게 힘을 주는 활동이다. 음식을 준비하는 사람들도 음식을 잡수시는 어르신들도 모두에게 힘을 주고 행복을 주는 활동이기 때문이다. 밥퍼 활동으로 인해 뿌듯함을 느끼고 행복을 느꼈기 때문이다. 다음번에도 밥퍼 봉사를 신청해 더 열심히 하고 싶다.

물이다 이희정
평소에 물은 누구나 쉽게 마실수 있지만 우리는 산에 올라가서 물을 챙겨가지 않으면 그제서야 물의 소중함을 깨닫곤 합니다. 평소에 밥에 대한 감사함을 모르고 엄마에게 반찬투정을 하던 생각이 나 반성도 하고 밥 한끼에 대한 소중함을 깨달을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거울이다 재향군인회 청년단 박애나
거울을 보면 나 자신을 다듬게도 되고 또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것처럼 밥퍼는 내 자신을 한번 더 되돌아보게 만들어 주었다. 밥퍼를 하며 이 곳을 섬기고 계신 분들이 너무 존경스러웠고, 밥을 드시러 오시는 분들께 섬기고 싶은 마음이 부쩍 들었다.

나는 행복한 자원봉사자

동부메탈



따뜻함이 더한 동부메탈가족입니다. 이제 메탈하면 차갑다는 느낌이 아니라 따뜻함이라는 단어로 기억 될 듯 합니다. 함께 나누는 사랑의 나눔이 아름답습니다!

국립외교원



윤덕민원장님과 47기 연수생 41명이 함께 하였습니다. 젊음의 에너지가 느껴지는 날이었고 앞으로의 한국 외교를 이끌어갈 분들의 섬김의 모습이 아름다웠습니다.

공무원연금공단&NH농협



노장은 죽지 않는다! 은퇴공무원으로 백전노장의 힘을 보여주신 공무원 연금공단과 또한 함께 협력하여 쌀을 후원하여 주신NH농협에 감사드립니다!

게라(글로벌에스테틱러더협회)



아름다움을 가꾸고 지키는 전문가답게 내적, 외적 아름다움을 겸비하신 한분 한분의 정성을 다한 봉사에 감사합니다.

외교부



연수생들이 다녀간지 얼마 되지 않아 외교부에서 허철 대사님과 외교부 가족들의 나눔과 섬김이 있었습니다. 밥퍼의 든든한 지원자인 외교부가 최고야!!!

염광고등학교



맑고 밝은 기운이 가득찬 하루 바로 염광고등학교 학생들의 봉사의 힘이겠지요. 툭툭 튀는 젊음이 싱그럽고 또한 대견스럽네요. 이러한 친구들이 있기에 미래가 밝습니다!

외환은행나눔재단



이웃사랑의 실천을 행하는 외환은행 나눔재단 가족입니다. 사랑의 실천이 이제는 몸속 깊이 우리나라와 향기를 발하는 이 분들의 섬김의 모습이 아름다웠습니다.

크룩스코리아



편한 신발을 만드는 업체답게 기쁨으로 봉사해 주시고 스태프들의 마음에서도 평안을 느낄 수 있었던 크룩스코리아. 사랑의 쌀로 두배의 기쁨을 주었습니다.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앞으로의 한국을 이끌어갈 청소년들의 고민을 상담해주시는 귀한 분들입니다. 밥퍼에서 나눔을 통해 오히려 본인들이 힐링이 된다 하시니 정말 나눔과 섬김이 체질인 분들이지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네 팔



난생 처음 시험

네팔 다일공동체의 대안학교 다일호프스쿨에서 처음으로 중간고사가 있었습니다. 거리에서 구걸하며 주변 사람들을 시험(?)들게 하던 우리 아이들이 천지창조 이래 처음으로 시험을 치렀습니다. 역시 시험은 시험이었습니다.

긴장하며 진지하게 시험을 치르는 아이들이 얼마나 대견스럽던지요. 지켜보는 제 가슴이 뛰며 감격하여 잠시 울컥했습니다.

얘들아, 이번은 첫 시험이니 그것으로 감사하고 만족하재시험 보느라 고생들 했어요! ^^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게 열심히 가르쳐 주세요"

호프스쿨 학부모 모임이 열린 날입니다. 각 반 선생님과 부모님들이 함께 둘러앉아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이번 모임에서는 부모님들



이 호프스쿨에 바라는 점에 대해 알아보느라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의견을 내주셨고, 가장 압도적으로 많이 제시해주신 의견은 "더욱 더 열심히 가르쳐 주세요"였습니다. 선생님들이 힘낼 수 있도록 많은 격려와 응원 보내주세요!

다일작은천국



10월의 어느 멋진 날 ♪

다일작은천국에서 생일 잔치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좋은 날씨에 태어나신 분은 얼마나 행복할까요. 다일작은천국에 오셔서 술을 끊으려 열심히 생활하며

지내시는 김00님, 위암과 만성신부전을 앓고 계시지만 이제 제2의 인생을 시작하고 싶다는 전00님, 10월의 어느 멋진 날 지구별에 오시길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건강하세요~

노숙인시설 운영평가

개원 후 처음으로 맞는 평가라서 방중근 원장님부터 모든 직원들이 기도하면서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현장 평가단에서 다일의 시설을 둘러보고는 큰 감동을 받았으며, 생의 마지막을



함께 해주는 가족들이 있어서 다일작은천국의 입소자들은 참 행복한 사람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다일작은천국은 우수하고 탁월한 성격으로 평가를 마쳤습니다.

Little Heaven

미주다일공동체



사랑의 커피를 나눕니다

유빌라떼의 새로운 판매물품이 개발되었습니다. 일명 사랑의 커피 유빌라떼의 커피는 향이 좋고 맛이 좋기로 아주 유명하답니다. 유빌라떼에서 개발한 커피를 이번에는 작게 일회용 사이즈로 포장하여 판매해 보고자 만들어 보았습니다. 모든 수익금은 제3세계 아동사역

과 밥퍼 사역을 위하여 쓰여 집니다. 유빌라떼의 커피향이 주님의 향기처럼 널리 널리 퍼지길 소망합니다.

중국다일공동체

중국 다일공동체는 운동회 중

요즘 중국다일공동체는 운동회가 한창입니다. 각 학교들의 운동회 시즌이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여러 학교에 다니는 관계로 소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대학교까지 연이은 운동회 참가로 온 가족이 새벽부터 저녁까지 분주합니다. 한국의 체육대회와는 달리 이곳은 운동회에 부모님들의 참여

USA · China



가 많으며 부모와 자녀의 이어달리기, 장애물 경기 등이 운동회의 큰 재미입니다.

각 운동회에서 중 다일 가족들의 활약이 대단합니다. 동시에 열리는 운동회에 여기저기 학교를 다니느라 분주하지만 대가족인 중국다일공동체 가족들의 마음만은 뿌듯합니다.

베트남

베트남다일공동체 사역에 날개를 달아주세요.

베트남 다일공동체는 한인 기업에서 생산하는 물품을 후원 받아도 물품을 운반할 차량이 없어서 물품을 꼭 필요로 하는 우리의 가난하고 혈벗은 이웃들에게 물품들을 전달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꼭 전달해 달라며 정성껏 준비하여 보내 주시는 물품을 베트남은 물론이고 캄보디아나 주변국에도 전해 주고 싶은데 운반할 차량이 없는 실정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베트남다일공동체에 필요한 차량구입을 위해서 \$20,000이 더 필요합니다. 베트남 다일공동체 밥퍼 사역에 날개를 달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함께 참여하여 천사가 되어 주세요.

문대기대표 손가락, 황금임대표 옷 후원

KREVES의 문대기 대표님과 대유 비나 황금임대표님께서 캄보디아다일공동체의 사정을 전해 들으시고 아이들을 위하여 손가락 600개와 옷 1,200여벌을 특별히 제작하여 후원해 주셨습니다.

문대표님은 좋은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서 고맙다는 말씀을 황대표님은 좋은 일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다는 말씀도 전해 오셨습니다.

베트남과 캄보디아는 육로로 국경이 연결되어 있고 수 십대의 버스가 매일 국경을 오고 가는 있어서 베트남에서 후원 받은 물품을 이 버스를 이용하여 캄보디아다일공동체에 전해 주고 있습니다. 많은 한인 기업들이 베트남다일공동체는 물론이고 캄보디아다일공동체에도 전해 줄 물품후원의 손길이 이어지기를 희망합니다.

Vietnam

탄자니아다일공동체



나눔의 미학!

37, 38번째 밥퍼가 사랑과 은혜 가운데 잘 진행 되었습니다. 겨울이 지나가면서 점점 더 뜨거워지는 날씨 가운데 사랑하 는 탄자니아 아이들을 위해 자원봉사 해주신 자원봉사자 여러분께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일공동체의 정신은 무엇인지, 밥퍼가 어떻게 시작되게 되었는지 전혀 모르는 미 대사관 가족들을 위해 최일도 목사님께서 주신 선물인 'Jubilate' 책이 잘 전달 되었습니다. 예상

치 못한 선물을 받고 얼마나 행복하고 기뻐하였는지 모릅니다. 받는 아이들도 행복하고 주는 자원봉사자들은 더 행복해지는 아름답고도 놀라운 나눔의 미학! 탄자니아 다일공동체 쿤두치 밥퍼에서 눈으로 보시고 몸으로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이 은혜와 축복의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은 아동결연 지원품 받는 날~~

학수고대하던 그 날이 찾아 왔습니다. '오늘은 짜파x티 먹는 날~~'이 아닌... 아동결연 지원 품 받는 날~~이거든요. 감사하게 쌀 값의 변동이 없어서 이번 달도 쌀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다일 홈 커밍 데이'로 한국을 방문했을 때 아이들에게 예쁜 볼펜 사주었으면 좋겠다고 서상덕 후원이사님께서 후원하신 볼펜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색깔이 다양하며



크기가 굵고 튼튼한 볼펜이라 얼마나 좋아하는지 자기 손바닥에 색깔을 하나씩 그려보며 웃음을 감추지 못합니다. 그리고 대흥교회 학생회에서 결연한 '안젤라'에게 대흥교회 학생회가 정성껏 준비해 주신 예쁜 가방을 잘 전달해 주었습니다. 뜻밖의 선물을 받은 안젤라, 입이 귀에 걸립니다. 정말 도움이 필요한 도시 빈민의 자녀들, 이 도움을 힘입어 가정 경제가 일어나고 더욱더 좋은 환경에서 공부하며 자신의 꿈을 키울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향어린이집



찾아가는 건강영양교육

강남구 보육정보센터에서 예향어린이집에 방문하여 소망반, 행복반 친구들을 대상으로 건강영양교육을 들려주셨어요.

예향친구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토마스 기차에 음식 친구들을 태우고 건강기차 놀이를 해보며 골고루 먹어야 빠와 몸이 튼튼해져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다고 이야기 나누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성폭력예방 인형극

10월 10일에는 레인보우인형극단에서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방문하셔서 신기한 마술공연과 함께 성폭력예방 인형극을 보여주셨어요. 할아버지, 할머니께



서 직접 옷을 갈아입고 인형극도 들려주시고 손인형을 통해 이야기를 들려주셔서 예향 친구들도 재미있어하며 집중하여 인형극을 들을 수 있었답니다.

Tanzania

Yehyang

필리핀다일공동체



찬양소리가 울려 퍼져서

7천여 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필리핀 환경태평양에 속해서인가, 태풍이 아주 잦네요. 며칠 비바람이 아주 세차게 휘몰아칩니다. 또 태풍입니다. 그래도 예배는 해야겠지요! 마음을 가다듬고 기도한 후 예배를 시작하였습니다.

찬양소리가 울려 퍼져서일까? 퍼붓는 비속을 뚫고 아이들이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달려오더군요. 아이들이 기특했고 예뻐했습니다. 원장의 눈에도 애들이 이렇게 예뻐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눈에는 얼마나 더 예뻐할까요?

“You are special~”

다일유치원에서 ‘You are special~’ 행사를 하였습니다. 자기 소개와 장래 꿈을 영어로 말하고 그 꿈에 어울리는 의상까지 갖춰 입고 발표하는 꿈 잔치였어요.

Philippines



의사, 간호사, 선생님, 군인, 경찰, 여자 파일럿, 미스필리핀 등등이 발표되었습니다. 그 진지한 모습들이 얼마나 귀엽고 사랑스러웠는지 모릅니다. 이 아이들이 그 꿈대로 잘 성장하여서 장차 필리핀의 인재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재목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해주세요.

캄보디아다일공동체



르은이가 드디어 학교를 가다!

지난해 5월, 한 캄보디아 아이가 한국에서 심장병 수술을 받았습니다. 2013년 10월 수술받고 회복하여 건강을 찾은 그 아이가 학교에 입학하였습니다. 그 아이가 바로 르은 입니다! 르은이가

드디어 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그토록 오래 꿈꾸고 바라던 일이 현실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운지!!! 그동안 르은이를 위해 한 마음, 한 뜻으로 기도해주시고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학교를 다니며 더욱 아름다운 사람이 될 르은이를 위해 계속해서 응원해주시고 기도해주세요!

사진 속에 피어나는 아이들의 웃음꽃 오늘 하루 아이들의 웃음꽃이 활짝 폈습니다. 봉사자분들이, 아이 한 사람 한 사

Cambodia



람의 모습을 담은 사진을 찍어 나누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사진 속에 담긴 자신의 얼굴을 보며, 친구와 찍은 사진을 나누어 보여주는 아이들의 소리가 가득합니다. 비록 사진 한 장이지만, 아이들에게는 너무나 큰 선물이 되었습니다.

나는 배웠다_2

샤를르 드 푸코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사랑의 말을 남겨 놓아야 함을

나는 배웠다.
어느 순간이 우리의 마지막 시간이 될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므로
두 사람이 서로 다룬다고 해서
서로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님을 나는 배웠다
그리고 두 사람이 서로 다투지 않는다고 해서
서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것도
두 사람이 한 가지 사물을 바라보면서도
보는 것은 완전히 다를 수 있음을

나는 배웠다
나에게도 분노할 권리는 있으나
타인에 대해 몰인정하고 잔인하게 대할 권리는 없음을
내가 바라는 방식대로 나를 사랑해 주지 않는다고 해서
내 전부를 다해 사랑하지 않아도 좋다는 것이 아님을

그리고 나는 배웠다
아무리 내 마음이 아프다 하더라도
이 세상은 내 슬픔 때문에 멈추지 않는다는 것을
타인의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는 것과
내가 믿는 것을 위해 내 입장을 분명히 하는 것
이 두 가지를 엄격하게 구분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나는 배웠다
사랑하는 것과 사랑받는 것을

샤를르 드 푸코

(Charles de Foucauld, 1858~1916)
신부이며 사하라 사막의 선교사로서 예
수님의 충실한 종으로 일생을 헌신했다.
그는 그가 섬기던 타라만셋 사람들에게 의
해 순교했고 복자품위를 받았다.
훗날 그의 삶을 본받기 위해 예수작은형
제라는 수도회가 세워져 전세계에서 그
리스도의 일꾼으로 일하고 있다. 대표적
인 기도 시 '스스로 내어 맡기는
기도'는 다일공동체의 중요한 기도문 중
하나이다.

나눔을 실천해 주신 신규 회원들에게 감사, 감사, 감사드립니다!

2013.9.23-10.27

신규후원자

(주)두산산업차량라인천공장, 10월캄보디아, 강정숙, 강제준, 강지윤, 강혜아, 강화성, 고영진, 과천시 이영기, 동균, 구자영, 구현주, 구현희, 권오현, 금융위원회, 기원석, 김광숙, 김규림, 김근원, 김남희, 김동환, 김명남, 김민석, 김보람, 김부자, 김서영, 김소영, 김영식, 김유진, 김은숙, 김정숙, 김제인, 김준, 김준희, 김지희, 김혜주, 김희영, 남기욱, 남명숙, 남은경, 노경아, 노이현, 농협은행주식회사, 레이스코리아, 류혜정, 마인포, 민수연, 박경숙, 박범정, 박상완, 박선영, 박선희, 박성철, 박연운, 박연훈, 박은배, 박지혜, 박천민, 박현숙, 방한나, 배지원, 백점변, 은영복, 호정, 허을, 빨간웃의천사, 상군검침사업소광주지, 서나나, 서민철, 손병찬, 송경심, 송양숙, 송채아, 신복영, 신승우, 신은영, 신정란, 신현옥, 심문선, 심찬, 안수찬, 양다연, 양병철, 어규주, 엄용섭, 예희숙, 오미옥, 오정선, 외교부국립외교원, 유일비앤디(주), 윤계선, 윤서준, 윤영권, 윤재연, 윤정훈, 이강인, 이경선, 이경준, 이다인, 이단비, 이도희, 이봉섭, 이상빈(석성), 이상훈, 이석구, 이석재, 이연숙, 이연정, 이영준, 이유리, 이재용, 이정우, 윤수경, 이재은, 이하나, 이현식, 이현정, 이현정, 임세광, 임재경, 장강산, 장기석, 장세준, 장은하, 장형석, 전소연, 전승명, 전지훈, 정미경, 정숙영, 정순례, 정승례, 정용순, 정윤희, 정진영, 정창구, 정해님, 정훈, 조규필, 조도점, 조미현, 조순옥, 조은희, 채영미, 천사병원후원금, 천정임, 최경, 최은근, 최미란, 최순미, 최순열, 최옥진, 최하진, 히하이정윤수, 한경숙, 한국보건사회연구, 한미현, 한소영, 한승희, 한인실, 한정수, 한정자, 함나경, 홍문희, 홍신애, 홍종영, 홍주연, 황우금, 황채순 (가나다 순)

발퍼나눔운동본부

9월 후원금

강은국, 강찬훈, 권해진(휘슬러비즈), 광천교회, 공무원연금공단, 구미목장교회, 국립외교원국방홍보원, 국순애, 금융위원회(신재윤위원장님), 개라(글로벌에스테틱리더협의회), 김은정, 김재하, 김성연, 대한민국재향군인회, 동대문세무서, 맥키리, 박명숙, 박유미, 박종일, 밥퍼사랑나눔행복나눔, 번성하는104, 소망봉사팀, 서장선, 수도권산악회, 신민숙, 선 정혜영, 쌍용양회공업(주),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주), 영광고, 옥합선교회, 외환은행나눔재단, 윤현숙, 이동원, 이일옥, 이영기, 이종욱, 이희숙, 장문성, 정신남, 조순옥, 조현숙, (주)에스지엔지, (주)에이엠지코, 최경근, 최주영, 한정수현대상선, 홍경화, 황귀중, 황재영

발퍼 - 후원물품

골드후레쉬 과일 38box, 금융위원회(이진주사모님) 쌀10kg 4포, 농협은행 쌀10kg 50포, 도로교통공단 모자 500개, 드림재단 빵 3,200개, 동방유통 육계 50마리, 무명 쌀20kg 2포, 서울우유 우유 1008개, 외교부 쌀20kg 20포, 장재훈 쌀20kg 24포, (주)친환경두채류사업단, 중소기업중앙회 마파두부소스 900봉, 전통경기떡 떡 10box, 콩나물4kg 20box, 크록스코리아 쌀20kg 20포, KT&G복지재단 쌀10kg 10포

필리핀다일공동체

강미선, 신당중앙교회, 은퇴장로회, 이명현, 이효진, 캄보디아다일공동체, 추고은

탄자니아다일공동체

조준영, 필리핀다일공동체, 한윤주

베트남다일공동체

[백불의 기적]

강금순, 기업은행(3,155,000동), 나할(250만동), 대광, 대우인터내셔널, 대장금(500만동), 롯데리아(420만동), 보민건설, 베가스(2,000만동), 사이공한인연합교회(300만동), 스코베트남(600만동), 아리랑화학, 아산상선(4,210,000동), 우리은행(300만원), 조연숙(\$150), 코트라(370만동), 포스코SOUTH ASIA, 코트라(370만동), 포스코ICT베트남(1,400만동), 해방교회(\$200), POS-SEA

[후원자]

김승민, 김승준, 배준익, 배서진, 배진영, 이중환, 전기성, 최기흠, 최해인, 최해린,

[후원물품]

기업은행(우유 144개), 대유비나 황금임대 (옷 1,200벌), 롯데리아(라면 130box), 문대기대표 (손가락 600개) 포스코CT(쌀20kg, 바나나)

캄보디아다일공동체

경남재가노인복지협회, 김선아, 김수겸, 김수열, 김순애, 김해시 진영읍 새마을 부녀회, 대박, 대야건설, 멜번 한인교회, 무명, 박선호, 박영신, 부천남부교회, 서선태, 손현규, 손현옥, 신경라, 신홍주, 윤태준, 임마누엘교회, 정선남회장외(주)TMC 최화실, 주다비목사, 최하진, 카도, 한미현, 한상소, 한영외고, 한희숙, 허에스더목사, 호주멜번한인교회, 회원일동

[후원품]

옷 5BOX, 치약 1BOX, 사탕 10봉, 연필/학용품 2BOX

중국다일공동체

강영남(중국심천), 권윤경(중국훈춘), 권오현(FWT), 김난영+신결(중국청도)김상빈(석성), 김상규목사(천안신천교회), 김성재(Obey & Praise), 정희숙(분당우리교회), 림예화+한원철(중국훈춘), 문정자+오양실+주다비+최의열+한유진(양자선교회), 박은숙(천안신천교회), 이숙의(미국 시카고), 조용근(석성), 한윤주(공두), 황지현(천안신천교회)

네팔다일공동체

김은영, 최희철선교사사모님, 이진호, 조경민, 최영선, Trekkers(jim, anthony, anna, gilly, walter)

-현장에서 후원금을 전달해 주신 분들입니다.

"지속적인 사랑으로 후원해주시는 후원회원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일은 여러분의 꿈과 정성이 담긴 귀한 후원금으로 소외된 이웃에게 희망을 주는 사역에 앞장서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일복지재단 후원안내

ARS 060-708-1588

다일복지재단 후원 방법 안내

1. CMS(자동이체)

후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우편으로 보내 주시면 됩니다.
다일복지재단(02-2212-8004)으로 전화주시면 CMS신청이 가능합니다.

2. www.dail.org에 접속하시면

다양한 후원에 대하여 알 수 있고 손쉽게 후원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후원도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3. 착한소비 행복한 나눔

사랑의 보험

매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자동차보험을 기부플랫폼에 견적예약 하면 보험만기 1개월 전에 8개 보험사 비교 견적을 제공하여 가장 좋은 가입조건으로 계약할 수 있도록 해드립니다. 동시에 수익금의 일부가 다일공동체에 기부됩니다.

모든 후원금은 연말정산시 소득공제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체 참여

후원 문의

TEL 02-2212-8004

FAX 02-2212-8032

www.dail.org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전농1동 497-77
사회복지법인 다일복지재단

미주지역 후원계좌

은행이름 : First Intercontinental Bank

은행번호 : 061119794

계좌번호 : 1510014622

예금주 : Dail Community of USA Inc.

은행이름 : Bank of America

계좌번호 : 334001270347

예금주 : Dail Community of USA Inc.

(한국에서 송금할때) 은행 wire code : BOFAUS3N

(미국에서 송금할때) 은행 wire code : 026009593

국내후원계좌 국민 467701-01-053115

예금주 사회복지법인 다일복지재단

미주다일공동체 후원 문의 Tel 1-770-813-0899

Fax 1-770-813-0133

DAIL Community of USA

P.O BOX 337 Suwanee, GA 30024-0337

국내 및 해외 분원 연락처와 후원계좌

밥퍼나눔운동본부

문의 전화 02-2214-0365

E-mail babfor@dail.org

후원계좌 국민 010901-04-037581 예금주 사회복지법인 다일복지재단

설곡산다일공동체

문의 전화 031-585-2004

E-mail abehong@dail.org

후원계좌 국민 010901-04-064419 예금주 사회복지법인 다일복지재단

다일천사병원

문의 전화 02-2213-8004

E-mail Sunyoung@dail.org

후원계좌 국민 010-01-0975-871 예금주 사회복지법인 다일복지재단

다일작은천국

문의 전화 02-2213-8004

E-mail bjgjesus@dail.org

후원계좌 국민 467701-01-224504 예금주 사회복지법인 다일복지재단

다일평화의 마을

문의 전화 031-568-5004

E-mail ahtp7749@dail.org

후원계좌 국민 010-01-0619-487 예금주 사회복지법인 다일복지재단

중국다일공동체

문의 전화 86-183-4339-7009

E-mail bom@dail.org

070-7792-5451

후원계좌 기업 017-033086-01-021 예금주 사회복지법인 다일복지재단

베트남다일공동체

문의 전화 84-12-6317-7912

070-8220-6160

E-mail lplhome@dail.org

후원계좌 국민 467701-01-142594 예금주 사회복지법인 다일복지재단

캄보디아다일공동체

문의 전화 855-78-70-8080

070-8220-3940

E-mail mookanri@dail.org

후원계좌 국민 467701-01-142565 예금주 사회복지법인 다일복지재단

필리핀다일공동체

문의 전화 63-927-560-7346

070-8220-3278

E-mail emhok@dail.org

후원계좌 국민 467701-01-142581 예금주 사회복지법인 다일복지재단

네팔다일공동체

문의 전화 977-98494-58330

070-8201-5833

E-mail babperdail@hanmail.net

후원계좌 국민 467701-01-157448 예금주 사회복지법인 다일복지재단

탄자니아다일공동체

문의 전화 255-786-740-003

070-4099-8686

E-mail dail8004@gmail.com / hslee0304@hotmail.com

후원계좌 국민 467701-01-233964 예금주 사회복지법인 다일복지재단

2013년 연말정산 기부금공제 안내

연말정산 기부금공제
잊지마세요~!

안녕하세요, 다일 후원가족 여러분.

늘 한결같이 보내주시는 따뜻한 관심과 사랑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 동안 보내주신 후원금은 법인세법과 소득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지정기부금(코드40)으로 기부금 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에 필요한 기부금영수증에 대해 안내해드리오니 기부금공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위해 개인정보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부금 영수증에 기재되는 **회원명**과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해주세요.

기부금 영수증이 올바른 주소지로 발급되도록 **주소**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일공동체 홈페이지(www.dail.org)에서 바로 수정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 로그인 → 마이페이지 → 개인정보변경

회원가입하신 후 후원하신 내역확인이 되지 않으실 경우 다일복지재단 후원관리실(02)2212-8004로 연락주세요.

기부금영수증 발급 방법이 다양해졌습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www.yesone.go.kr

주민등록번호 13자리 모두 다일복지재단 프로그램에 입력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조화가 불가능합니다.



다일복지재단 홈페이지에서 출력

www.dail.org (홈페이지 → 마이페이지 → 온라인증명서 발급 → 기부금영수증)



우편 수령하기

2014년 1월 중순 경,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기부금 영수증의 후원금액 합산 기준

2013년 1월 1일~ 2013년 12월 31일 납입금액

신용카드로 결제하시는 경우는 12월 20일까지 납부해주셔야 2013년 기부금영수증 금액에 합산됩니다.

지로로 납부하시는 경우는 12월 26일까지 납부해주셔야 2013년 기부금영수증 금액에 합산됩니다.



천사를 찾습니다!

개신교 최초 무료병원인 다일천사병원을
건립할 수 있도록 천사가 되어주신 분들을 찾습니다.

지금까지 천사후원을 해 주신 많은 후원회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1천사부터 현재 9천사까지 모든 후원회원 분들께
소식지로 이메일로 때로는 전화로
다일의 사역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는데
많은 분들의 연락처와 주소가 바뀌어
안타깝게도 소식을 전해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항상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다일의 소식을 전해드리고자 하오니
1천사부터 천사운동에 동참해주신 천사회원이신데,
소식지 「다일공동체」나 다일의 행사 소식을 받지 못하시는 분 이시거나
그런 분을 알고 계신다면
다일복지재단 후원관리실 02.2212.8004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천사운동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기부터 작은 것부터 할 수 있는 것부터 나부터 실천하시는
다일의 천사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이 그 주인공입니다!

다일영성수련

2013년 | 11월 11일(월) ~ 11월 15일(금) | 1단계 150기 아름다운세상찾기
 11~12월 | 12월 16일(월) ~ 12월 20일(금) | 1단계 151기 아름다운세상찾기



“내 인생에서 못해본 여행이 딱 두가지 있다. 신혼여행과 우주여행
 신혼여행이 얼마나 멋진지는 모르지만 이번에 다일공동체에서 경험한
 영적우주여행, 1단계 아름다운 세상찾기라는 영성수련은 여태까지
 내가 한 여행중에서 가장 멋지고 훌륭한 여행이었다.”

-한네리아(전 월드컵전 구호팀장)

설곡산 다일공동체

시설이용안내



설곡산다일공동체는 침묵의 성지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하나되는 공동체 정신과
 나사렛 예수의 영성을 침묵과 노동 속에서
 구현합니다.

화해와 일치를 위해 섬김과 나눔을 살아가기
 원하는 분과 치유와 회복을 위해 쉼을 원하시는
 분들을 기다립니다.

대표 | 최일도 목사
 다일교회 설립 목사
 다일공동체 대표
 다일복지재단 이사장
 사회교육 감사
 한동대학교 겸임 교수



설곡산다일공동체 T: 031)585-2004
 www.dail.org H: 010)7756-8004

영성수련(대관 및 개인피정) 신청은 수련 시작 일주일 전 선착순 마감하며,
 수련비 입금(농협 355-0022-4654-93 예금주:다일공동체)으로 등록 완료됩니다.
 영성수련은 한 달 전에 입금하시면 5만원의 할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facebook



최일도목사의 페이지입니다.

좋아요 12,816명 ·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 1,326명

좋아요

메시지



커뮤니티
밥짓는 시인, 최일도 목사입니다



12,816

Facebook

페이지에서 기다립니다!!

날마다 부치는 행복편지와 함께
벗님들과 우정과 사랑과 희망을
진솔하게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의 행복을 위하여

·
·
·

시인목사, 최일도 올림



최일도 목사의 행복편지 페이스북

<http://www.facebook.com/choiildoletter>

페이스북 상단의 「좋아요」를 클릭하시면 최일도 목사님의 행복편지를 계속해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